

【나의 책, 나의 학문】

나의 삶, 나의 학문

전재호

한·일언어문화연구소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1. 국문과를 택한 동기

나는 1947년 3월 대구 사범대학 문학부 국문과에 입학하였다. 왜 국문과를 택하였나? 당시 나의 2가지 생각이 동기가 되어 이과를 택하였다고 여겨진다. 하나는 고등학교에 국어 담당 윤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명문장을 여기 저기 뽑아내어, 아나운서와 같이 명석하고 낭랑하게 읽는 데다가, 감성의 표현 마저 알맞게 곁들여 있었다. 급우와 함께 나는 심히 보기 좋았고 동경하였다. 학생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이것이 국문과를 택한 원심적 동기가 되게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 나는 대구 사범대 전문부를 수료하고 동 대학 학부에 진학하였다. 당시 규칙에 따라 어느 학과에라도 학생이 원하는 과를 택할 수 있었다. 나는 문학에 구미가 당기었다. 영문과로 정할까 했지만 나의 조건과 이상에 맞지 않았다.

그 당시, 국문과는 연구가 미개척이었고 황무지라 할 수 있었다. 36년 동안 언어조차 빼앗기어 있었으니, 어찌 오늘 같은 국어국문학의 연구가 있었으랴? 그래서 잃었던 우리 것을 돌이키고, 개척해야 한다. 개척하는 데에

보람이 있다. 새나라 건국초기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였다. 갑작스레 광복이 되었으니 몇몇한 나라가 아직 수립되지도 못하였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학문의 시작이 될 학과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사범대학의 사회생활과와 영문과를 택하였다. 사생과는 법학과 경제 강의도 있었으므로 이것을 공부하여 고등고시를 치고, 법률과 경제를 공부하여 사회에 나가 고관이 되고 권리를 잡고, 또 일제 하에서 굶주리어 노예 같은 생활을 했으므로 이를 벗어나 자유로이 우리 손으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한 꿈에서 전공과를 택한 것이었다. 그런데, 공산 압박을 받았던 종교 집단 YMCA그룹의 학생들은 교육과를 택했다. 노예 교육에 시달리고 민주 교육의 의식이 부족하고 그 기초가 잡히지 않았으니, 새 나라가 세워지려면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상호 토론이 빈번하였던 것이다. 의사가 적고 무의촌(無醫村)이 허다하니, 우선 이것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대에 들어간 친구도 많았다.

2. 대학 생활

입학한 학생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직업을 가지고 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반수나 될 듯이 보였다. 나도 학부 1학년부터 중고등학교 교사직을 가지고 대학에 다녔다. 그 때 교사는 16시간의 수업을 맡았으니, 하루에 3시간 채 못 미치는 시간만 수업하면 그 밖의 시간에 빠져나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중에도 나는 강의 시간만은 결코 빠지지 않은 편이었다.

국문과에는 자격 교수가 별로 없었다. 대개 한문시간이 많았다. 더군다나 「국어학 강의」는 거의 없었다. 고작 했자 고전 안에 나오는 한문 구절 풀이였고 신식 교육을 받지 않았던 구식 한문에 능한 교령자 선생에게 한문을 배웠다. 교과 과정에는 추상적인 과목이 들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당시 김사엽 스승의 문학 강의 외에는 그리 신통한 강의가 없었다. 그야 학생들도 한글 철자법조차 잘 모르는 시기였으니, 그 학생에 그 선생이라 해도 어

떨 수 없지만.

교수의 수가 적고 고르지 못하니, 전공 과목만 이수해서는 이수 학점이 차지 못하였다. 총 202-210학점이 이수해야 할 학점 수였으므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학과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리학(4), 교육학(4), 독어, 영어, 법학통론, 국사개론, 헌법, 문화사, 경제학 등 112학점을 채우고, 전공 90학점을 취득하여 202학점으로 졸업을 하였다.

1953년에 나는 고려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나는 국어학 김형규 교수님을 만났고, 지도 교수로 모신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수 과정과 학점을 하나씩 취득하면서 김 교수님의 강의는 빠짐없이 흥미를 느끼며 수강하였다. 그 중에도 「국어사」 강의에는 더욱 매료되었다. 어휘를 고대, 중세, 근세에 걸쳐 변천하는 과정과 그 원인을 밝히는 방법의 강의는 신기하기만 했다. 처음 듣는 방법일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한 강의와 저서는 없었으니, 그것은 국어사의 효시(嚆矢)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새로 받아들인 이 방법은 나의 경북대학 강의에 적용하여 흥미를 초래하였다. 국어사 강의, 고대어·중세어 강독, 고려가요 등의 강의에도 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용비어천가, 두시언해 등의 강독에 김 교수님의 역사 언어학적(Historical Linguistic) 방법을 도입하게 되니, 단순한 의미 풀이가 아니고, 의미·어형·음운 등에 관하여 공시적, 통시적 시야가 넓혀져서 역동적인 연구로 이끌려 가는 듯 하였다. 이 방법은 나의 박사 학위 논문 「意味機能의 時代的推移(1973)」에까지 영향을 미치었고, 문공부 제21회 추천 도서 선정에 뽑힌 「국어어휘사연구(1988)」도 그 방법에 의한 점이 많았다.

나는 가족을 두고, 성취의 의욕을 품고 상경한 이상, 차체에 여러 명교수의 강의를 다 들어야 한다는 욕심이 일어나, 다른 대학 강의를 훑쳐 듣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사범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강의하시는 최현배 문법 강의도 계속 청강하고, 이송녕 박사의 강의 국어학 개론을 학부 학생들과 함께 학점 없이 수강하였고, 그 분의 논문 여러 가지를 읽고 고무되었다. 특히 양주동 박사의 「향가」 강의는 그 권위가 독보적 존재였다. 고전문학 강

의는 동서와 고금을 왕래하는 폭넓은 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3. 강의와 연구

1955년 3월에 고려 대학원에 석사 학위 논문 『龍飛御天歌研究』를 제출, 통과하였다. 이것을 고려대학 신문에 여러 회에 걸쳐 신게 되었다. 이것과 관계가 있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그 당시 경북대학 패컬티 멤버(faculty member)로 근무한 남광우(南廣祐) 선생을 통하여 경북대 문리대로부터 교수 초빙이 왔다. 처음엔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나 나는 1955년 9월에 문리대에 전임 강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35년 동안 대학 교육 담당의 시작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학문 연구도 또한 그러하다. 학과목의 수업을 통하여 피동적으로 배우는 기초 과정이 아니고, 과목을 가르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깊이 천착하고, 논문과 저서를 내며 학회 발표 활동을 행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척하는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이 시기부터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91년 2월 정년 퇴임 직전에 학생들 앞에서 告別 강연을 하였다. 그 제목이 ‘나의 學問歷程’이었다. 여기서 그 목차를 제시하여 이 논제 이해의 참고로 삼도록 책임을 전가하고, 넓은 범위의 구체적인 경과를 구차하게 쓰지 않는다. 이 시기를 간단하게 저축해 놓고, 91년 이후 현재까지의 학문 활동을 통하여 말기 변화를 적어 정년 이후로 승계하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 강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光復時期의 國語
- II. 一般言語學理論과 提携하는 國語學
- III. 國語의 歷史의 研究
 - ① 杜詩諺解 研究와 「杜詩諺解 論釋」
 - ② 古語研究와 國語 語彙史 研究

IV. 聲音學에 關한 연구

V. 表現文法研究

VI. 敬語研究

VII. 알타이어 研究

VIII. 方言研究

IX. 맺음말

4. 역사적 연구(historical study)

1.1. 古典의 語釋과 講解

나는 '55년 大學 첫강의 과목이 「국어학 강독」이었다. 「杜詩諺解」, 「龍飛御天歌」, 「月印釋譜」 등의 中世語 文獻을 강독하는 것이었다. 좀 해가 지난 후에는 고대어, 중세어, 근세어와 같이 국어학의 시대 구분에 따라, 고대어 강독(향가 중심), 중세어 강독, 근세어 강독으로 세분한 과목으로 만들었다. 본 대학에 시작부터 자리 잡은 어학교수는 필자뿐이었으므로 시대 요청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교과 과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하였다. 이 3시대 문헌 중 중요한 것을 강독하고 강해했다. 이러한 문헌을 개발하고 수집하고, 해독과 강해를 하는 것이 광복 후 '4·50년대 국어학의 경향이었고, 그 대상 범위는 古語 연구에 집중돼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제후하였던 나는 차차, 단순히 고어 문장을 현대 말로 바꾼다든지 읽어내거나, 어려운 어휘의 뜻을 밝히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중세어 어휘에 부딪히면, 이것이 시대를 통하여 현대에 이르며 어떻게 바뀌어 왔나? 音韻의으로, 형태적으로, 문법적으로, 어원적으로 다각적 관찰을 하고 또, 왜 이렇게 변하였을까를 사색하고, 고구하는 것이 연구 방법이었다. 문헌학적 주석을 벗어나 신언어학적 관찰로 입체적 창의적 주석이 되게 할 의도가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前間恭作님의 著 「龍歌攷語箋」과 許雄님의 著 「註解 龍飛御天歌」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

되어 先攻을 잊지 않는다.

또, 문헌의 시대 포착과 저자와 저작된 지역의 관찰이 결여해서는 문헌어의 다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여 이뤄진 책이 68년에 저술된 554면의 「杜詩諺解 論釋」이었다. 이 책의 최종 교정을 마치고, 故 李崇寧 박사께 보여드렸더니,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평을 보내 주셔서 제가 의도한 바를 꿰뚫어 보는 듯하였고, 미완성을 질책(叱責)할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내 스스로 아는 미숙한 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기뻐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앞으로 향한 역사적 연구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추후에 이루어갈 역사적 연구의 기초가 된 것은 분명했다고 상금 확인하는 바이다.

“杜詩諺解 論釋은 論究編에서 지금까지 미처 손대지 못하였던 問題點을 緻密한 論述로 밝혔으며, 講解編에서 特히 새로운 方法으로 註釋을 성실히 加하였다. 正確과 새로운 試圖을 꾀하였으니 註釋의 開拓이 될 것이며 方法上 새 示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 註釋學에 또 하나의 記錄을 마련한 것이니 크나큰 기쁨이며 學界의 새로운 刺戟이 될 것을 確信한다”고 기록하였다.

67.12 李崇寧

잇달아 발문에 허웅 교수가 쓰신 평을 보고, 과찬을 의심하면서도, 워낙 확실하고 진실한 분이니까... 하고 믿으니, 나의 의욕을 크게 북돋우는 것이었다.

“이제 그 내용을 훑어보니, 판본에 대한 상세한 서지학적 연구에서 시작하여, 감탄어미, 치조 통비음화에 대한 고찰, 사이시옷, 시상에 대한 연구 따위, 표기법과 음운·문법에 대한 독특한 현상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 논설 다음에, 십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 온 강해편이 되어 있다. 논구편의 각 논문들도 모두 주옥같은 가치를 가진 것들인데, 그 방대한 분량에 달하는 강해편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큰 업적으로 손꼽을 만한 것이다. 이러한 치밀하고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전 교수와 같은, 침착하고 학구에 불타는 정열을 가진 학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일이다.”

5. 國語 語彙史 研究

1987년에 이 책(373면)을 경북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하였고 그 5년 후 1992년에 이 초판을 수정하고, 훨씬 더 추가 增補하여 488면의 책을 다시 출간한 것이 이 增補修訂版이다.

55년 이래로 古典의 강의와 연구에서 시작하여 32년 동안이나 계속해 왔고, 각종 고어 관계 논문과, 그 자료의 수집과 書誌 탐구와 역대 文獻語의 索引을 작성했다. 이들과 함께 앞서 언급한 「杜詩諺解 論釋」 이것이,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이 될 「어휘사 연구」의 결정적인 기초 작업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되돌아보니, 그 인식이 분명해진다.

나는 집필하면서 시종 일관한 指標로 삼고, 염두에서 떠나지 않게 한 것은

1) 「국어사」에서 어휘, 음운, 문법의 역사는 고대어, 중세어, 근세어에 따라, 논급이 돼 있지만, 그러나 왜 「의미 연구」는 결여돼 있는가? 이 어휘의 구성요소인 「의미」가 따르지 않고는 어휘의 연구가 불완전하고, 그 어휘사가 파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의미」의 존재, 그 시대적 변천, 「어휘에서의 의미 기능」 등은 도외시돼 있다.(당시 유일한 교재였던 이기문 교수의 국어사 개설 참조) 「의미사」를 연구함으로써 「국어사」가 보완돼야 한다. 장차 진보된 국어사를 위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믿었다.

2) 어휘의 역사를 어떻게 전개하느냐이다. 「어휘사」라 하면 共時的(Synchronic) 어휘 사실을 토대로 하여 어휘의 通時的(Diachronic) 변천 과정과 그 원인을 고증에 의하여 밝혀야 할, 이론이 서야 한다고 믿었다. 이 이론 수립을 위하여 史的 言語研究의 論著를 日本語, 英語 저서에서 각종으로 찾았고 英語學史 및 예스페르센(Jespersen) 言語學通史 등을 자주 읽고, 그 깊이를 들여다 보려고 애썼다. 記述言語學에서 단어(어휘)는 어형(언어형식, form)과 의미(meaning) 또는 형태소(morpheme)와 의미소(sememe)의 결합과 분석을 논하였다. 이 2가지 요소는 자의성에 의하여 분리되기도 하고 구속성에 의하여 결합을 이루어 상당한 기간 유지되기도 한다. 이 두

요소는 시대를 통하여 각각 변화하기도 하고, 결합된 채로 다른 어형과 교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용의 변천 사실을 밝힌 위에서, 변천과정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은 Bloomfield, Sapir, 服部四郎 교수 등의 저서를 읽고 또 읽음으로써 활용되었다. 내게 시사를 주는 이런 저서가 방법적 동력이 됐고, 그 많은 문헌어를 깨알처럼 주워 모아, 통시적 공시적으로 검토하고, 고증하는 데에 허구한 시간이 걸리었다. 그 많은 문헌 어휘의 색인 작업에 참가한 대학 및 원생들은 얼마나 따분했겠는가? 게다가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수 없는 단어 하나 하나를 이 잡듯이 만지작거리며 생각하고, 漢字로 의미를 달고, 곡용, 활용을 살피어 효용이 되도록 다듬었다.

지금에 와서 추억처럼 가슴에 다가와, 몸이 오싹해진다. 얼마나 우직했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 그 자료의 대부분은 이용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또 다른 연구어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 더욱 안타까운 느낌이었다. 15세기 문헌어에서 19세기까지의 시대별 문헌어의 어휘 색인은 「國語語彙史 研究・資料集-歷代文獻의 語彙索引-I, II, III」(총 1565년, 弘文館)의 책에 실려 있고 색인 종류는 「나의 學問의 歷程」 7면의 참조를 요한다.

6. 일반 언어학의 기초와 대조 언어학의 시도

나의 국어학과 입학의 동기에서도 말하였거니와, 나의 修學期는 국어학의 여명기였음을 면치 못한 상황이었다. 국어학이 古語의 文獻學的 연구에 머물렀던 것은 당시의 현실이었다. 여기다가 다른 과에 비하여 나의 과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이었다고 느껴졌다. 타과 학생들은, 시조집이나, 고전 독본, 한문책을 끼고, 창하고, 읊는 것을 보고 「국문과」를 「고물과」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불렀으므로 희롱 받는 것 같았다. 또, 외국어 못하는 자가 몰린 과로 지칭받기도 했다.

이러한 시의(時議)에 대하여 나는 불만의 씨가 싹텄다고 여겨진다.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차차 지나면서, 나는 국어학이란, 언어학의 일종이

며 특수 언어학이다. 일반 언어학을 토대로 그에 제후하며, 그 기반 위에서 특수 언어학인 국어학을 쌓아 올려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李崇寧)를 듣고, 국어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3, 4가지 언어를 익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또李박사의 논저를 읽고 하게 되었다. 영, 독, 일, 만주어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원서 강독을 학과목에 넣고,李박사가 강독했다는 Korean Grammar을 강독 교재로 취하였고, 나중에는 그것을 번역하였다. 거기서 국어 연구의 방법도 새로 깨달은 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外書 강독」이란 과목으로 바꾸어 기술언어학(leave your language alone,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등을 장별로 강독하고, 기타 영어 언어학, Language by Bloomfield, Fromkin의 An introduction to Language, Langker의 언어와 구조 등을 읽고, 외서 강독교재로 하다가, 生成理論의 英書에 부딪혔다. 시종일관으로 「일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국어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나의 집념으로 굳어져 갔다고 보인다. 그것을 위하여 당장에 다 이해해 버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꾸만 변하여 가는 언어학 이론을 입수하여 읽는 데는 힘이 들었다.

그러나 75년에는 경쟁을 뚫고 뉴욕 주립 Buffalo 대학에 초빙교수로 가게 되어 유학의 숙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때에 역시 “국문과 교수가 뭇하러 渡美하느냐? 「가가」나 가르치지”하며 의문시하기도 하고 빈정대는 자도 있었으니, 학계의 통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거기서, 한국어를 개별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독사장 교수로부터 Hyman의 Phonology를 배우기도 하였다. 나는 귀국하여 Sanford A Schane의 Generative Phonology를 번역하였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신이론이었으므로 초판은 서툴렀다. 修訂 재판, 改正 3판을 내고 교재로 가르치고 하였다. 나의 공저 「국어학 개론」에 生成音韻論(1980)이 들어간 책은 당시 11권의 개론서 중에 처음이었다. 나는 이에 앞서 1958년 英書 Postposition in Mongolian Dialects...를 번역했고, Samuel E. Martin의 Korean Morphonetics 또한 2인 공역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또한 일반 언어학에 접근하고자 하는 저의가 작용한 것이다. 75년에는 대학의 관찰 뿐 아니라 영어권 문화와 언어를 체험

습득할 의도로 Harvard, MIT를 비롯하여 미국 동서와 Canada의 우수 대학 등 11개를 찾아다니며,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자료 수집하고 한 것도 일반 언어학과 제후하기 위한 나의 학문 指標 테두리에서 音聲言語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귀국시에는 힘들게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일주 여행도 그런 것이었다. 미국에 몇 번(75년, 89년, 91년) 간 것도 나의 학문 지표를 잊지 않고 대학에 간 것이며, 일본에 여러 번(61년, 65년, 79년, 93~96년) 대학에 간 것도 그러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에는 여러 번 갔었다. 이미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고, 새로운 자료를 모으고, 배웠고, 그 수용 능력이 높았다. 그리고, 그 언어가 구조 등 여러 가지로 유사한 데다가, 한국보다 연구성과, 도서, 교수, 언어학적 기반이 향상돼 있었다. 첫 渡日은 한·일 수교도 되기 4년 전 61년에 이루었다. 그 때 한국은 미국에만 문이 열렸고, GNP는 100弗 이하였으나, 일본에 상륙하여 보니, 학문과 문화 등이 세계 각 국과 교류하여 거의 개방되어 있었다. 그 때에도 동료들 중에는 국문과가 뭇 하러 일본에 가나 했고,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직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에게 친일파가 아니냐고 농담한 자도 있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나는 그럴수록 더욱 황무지 같은 국어학을 일반 언어학적 연구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는 학문적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가슴을 불태웠다고 추상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韓·美語 音韻變化의 對照연구’ 등등을 발표하였고, 韓·日言語文化研究를 93년부터 주요 목표로 연구해 왔고, 오늘 「韓·日言語文化研究」를 6집까지 내면서 연구 발표하고 있다. 이 방면 연구가 더욱 요청되는 국제적 연구에 부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학문의 길이 아득하고 미약하여 기초를 좀 넓게 닦고 국어 개척을 위하여 부르짖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넓게 미치지 못하였고 완벽한 것 무엇도 없다. 지금에 와서 해야 할 것이 많이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서산에 해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